



김선빈

타선이 살아야 마운드도 산다

T 타이거즈 전망대

KIA 타이거즈의 마운드 정상화를 위해 '타선의 집중력'이 절실하다.

아쉬운 패배가 쌓이고 있다. KIA는 지난 25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서 2-3 역전패를 당했다.

선발 싸움에서는 7이닝 2실점으로 호투한 브룩스가 1.1이닝 2실점에 그친 삼성 이승민에 완승을 했지만, 승리는 삼성이 가져갔다.

21일 LG전과 비슷한 패배였다.

이날 LG 선발 함덕주가 3회를 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선발로 전역 복귀전에 나선 김유신은 기대 이상의 피칭으로 선발 싸움을 해냈다. 결과는 3-7 역전패.

1회 확실하게 승기를 가져올 수 있는 득점 기회를 놓치면서 오히려 분위기를 내졌다.

KIA는 21일 경기를 틈타 최원준의 3루타로 열었다. 하지만 최원준만 홈에 들어오고 공격이 끝났다. 2-1로 앞선 3회는 연속 안타로 시작했지만 무득점.

초반 승부의 추를 기울이지 못한 KIA는 3-1로 앞선 5회말 결국 역전을 허용했다.

마음 급해진 선발의 실수가 아쉬웠다. 1사 1루에서 흥창기의 땅볼 타구를 직접 잡은 선발 김유신이 런다운 상황에서 공을 빠트리며 태그에 실패했다. 2사 1루를 기대했지만, 1사 1-3루가 됐고 투수를 고영창으로 교체해 땅볼을 노렸지만 3-4 역전을 허용했다. 결국, 경기는 역전패로 끝났다.

25일에도 1회가 아쉬웠다.

최원준이 볼넷으로 나간 뒤 김선빈과 터커의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홈에 들어왔다. 하지만 KIA의 1회 공격은 여기에서 끝이었다.

2회에도 한승택의 선두타자 안타가 나왔고 1사에서 최원준과 김선빈의 연속 안타가 나왔지만 1점

KIA, 선발 활약에도 아쉬운 패배 타선 집중력 떨어져 득점기회 날려 불펜 과부하로 어려운 승부 이어가 한화와 홈경기·KT와 원정경기 김선빈 3안타 더하면 1100 안타

을 더하는 데 그쳤다.

초반 확실한 기선 제압에 실패한 KIA는 결국 6회 동점을 허용했다. 이번에도 마음 급해진 투수의 실수가 나왔다.

무사 1루에서 도루를 시도하던 피렐라를 잡으려던 브룩스가 2루에 악송구를 한 것이다. 무사 3루가 됐고, 강민호의 안타에 2-2 동점을 허용했다.

가장 확실한 선발 브룩스를 내세우고도 어려운 경기를 하면서 결국 흐름은 삼성에 기울었다. 그리고 9회 2사 만루에서 나온 폭투에 리드를 내준

■KBO중간순위 (26일 현재)

| 순위 | 팀명 | 경기 | 승 | 무 | 패 | 게임차 |
|----|-----|----|----|---|----|-----|
| 1 | LG | 19 | 11 | 0 | 8 | 0 |
| 1 | SSG | 19 | 11 | 0 | 8 | 0 |
| 3 | 삼성 | 20 | 11 | 0 | 9 | 0.5 |
| 4 | NC | 19 | 10 | 0 | 9 | 1.0 |
| 4 | 두산 | 19 | 10 | 0 | 9 | 1.0 |
| 4 | KT | 19 | 10 | 0 | 9 | 1.0 |
| 7 | KIA | 19 | 9 | 0 | 10 | 2.0 |
| 7 | 롯데 | 19 | 9 | 0 | 10 | 2.0 |
| 9 | 한화 | 19 | 8 | 0 | 11 | 3.0 |
| 10 | 키움 | 20 | 7 | 0 | 13 | 4.5 |

KIA는 100세이브, 200세이브에 이어 오승환에게 300세이브 대기특까지 헌납했다.

시즌 초반부터 투·타의 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브룩스와 함께 23일 맹맨도 첫 승을 신고하는 등 '원투펀치'의 활약으로 요동치던 선발진에 무게가 실렸지만, 타선의 화끈한 공세가 따르지 못하면서 마운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초반 선발진 난조, 5차례의 연장 승부 여파로 불펜진의 부담이 크다. 믿었던 박준규가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특히 장현식과 정해영의 어깨가 무겁다. 2년 차에 마무리 중임을 맡아 어려운 승부를 이어온 정해영은 최근 구위, 제구 페이스가 모두 떨어지면서 우려를 사고 있다.

선발진의 상승세 속 불펜진의 과부하로 다시 또 KIA는 잇박자 행보를 하고 있다. 타자들이 마운드 정상화를 위해 공 하나 하나에 집중하면서 득점으로 마운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한편 새로운 한 주 김선빈이 1100안타에 도전한다. 김선빈은 안타 3개를 추가하면 통산 91번째 1100안타 주인공이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문화가 있는 날' K3석 입장권 50% 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특별공연도

KIA 타이거즈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입장권 할인 이벤트와 문화 공연을 준비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KIA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K3석 입장권을 50% 할인 판매한다. 당일인 28일은 물론 한화이글스와의 3연전(27-29일) 기간 할인 판매가 이뤄진다.

특별한 공연도 펼쳐진다.

28일 광주 윈드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준비됐고, 29일에는 광주 지역 뮤지컬단 '다락'이 유영 뮤지컬 하이라이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 1월 29일 처음 시행됐으며 전국 주요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의 무료 관람과 프로 스포츠 입장권 할인 등의 각종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부상 아냐” 가슴 쓸어내린 토론토

탬파베이전 3.2이닝 호투 중 허벅지 쪽 근육 불편 자진 강판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이 호투를 펼치던 중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 쪽 근육에 불편함을 느껴 자진 강판했다. 시즌 2승 달성도 다음 기회로 미뤘다.

류현진은 26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3.2이닝 동안 안타 3개와 볼넷 1개만을 내주고 무실점했다.

공 62개를 던졌고, 삼진은 5개를 잡았다.

무실점으로 잘 던지던 류현진은 0-0으로 맞선 4회 2사 후 마누엘 마르토프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한 뒤 벤치에 사인을 보냈다.

피트 워커 투수 코치에 이어 찰리 몬토요 감독이 마운드를 방문해 류현진과 대화했다. 류현진은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며 자신의 몸 상태를 설명했고 마운드를 팀 메이사에게 넘겼다.

턱아웃에 들어간 뒤 류현진은 스트레칭하며 몸 상태를 점검했다.

토론토 구단은 “류현진이 가벼운 오른쪽 둔부 통

증을 느꼈다”고 밝혔다.

매 이닝 삼진을 잡으며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던 터라, 갑작스러운 통증이 더 아쉬웠다.

토론토는 류현진에 이어 등판한 투수들이 무실점 역투를 이어간 덕에 탬파베이를 1-0으로 눌렀다.

류현진은 예기치 않은 부상으로 마운드를 내려가기 전까지 하이 패스트볼과 커브, 체인지업을 활용해 스트라이크존 상하를 활용하는 효과적인 투구를 했다.

류현진이 마운드를 지키는 동안에는 안타도 치지 못했던 토론토는 5회초 귀중한 한 점을 뺏겼다.

토론토는 류현진에 이어 등판한 메이사, 타일러 챗우드, 라이언 보루프, 데이비드 펠프스, 라파엘 돌리스가 5.1이닝을 무실점으로 합작해 승리를 지켰다.

/연합뉴스

또, 우승 좌절 ... 눈물 쏟은 손흥민

토트넘, 맨시티에 0-1 패배 카라바오컵 준우승 프로무대 첫 우승 트로피 놓쳐

프로 무대 통산 첫 우승 트로피의 기회를 놓친 손흥민(토트넘)이 끝내 눈물을 흘렸다.

토트넘은 26일 열린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와 2020-2021 잉글랜드 풋볼 리그(EFL)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0-1로 패배했다.

토트넘은 2007-2008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13년 만의 리그컵 정상 탈환에 실패하며 리그컵 통산 5번째 준우승에 머물렀다.

토트넘의 라이언 메이슨(29세 316일) 감독은 대형 지휘봉을 잡은 이후 두 경기째 만에 결승에 나서면서 역대 최연소 리그컵 결승전 사령탑으로 이름을 남겼다.

반면 이날 승리로 맨시티는 4회(2017-2018·2018-2019·2019-2020·2020-2021시즌) 연속 리그컵 정상에 올랐다.

더불어 맨시티는 통산 8회 우승으로 리버풀과 최다 우승 타이틀 기록했다. 맨시티의 이번 시즌 첫 우승 트로피였다.

손흥민과 루카스 모라를 좌우 날개로 세우고 발목 부상에서 조기 복귀한 해리 케인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배치한 4-3-3 전술을 가동한 토트넘은 맨시티의 전방 압박에 공격 루트를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

특히 손흥민과 케인은 중원의 패스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토트넘도 유효슈팅 1개의 극심한 공격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토트넘은 후반 21분 모라 대신 개러스 베일, 로셀소 대신 무시 시소코를 투입하면서 케인-베일-손흥민의 'KBS 트리오'가 최전방 공격을 이끌게 됐다.

하지만 기대했던 득점 소식은 맨시티의 몫이었다.

맨시티는 후반 37분 케빈 더브라위너가 왼쪽 코너 부근에서 올린 프리킥을 공격에 가담한 중앙 수비수 아이메릭 라포르테가 골지역 정면으로 쇄도하며 헤딩으로 1-0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손흥민은 주저 없이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고, 맨시티의 더브라위너가 눈물 쏟은 손흥민을 위로하는 장면도 연출했다.

/연합뉴스



라파엘 나달이 25일(현지시간) 스페인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 투어 바르셀로나 오픈 단식 정상에 올라 우승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3시간 38분 대 혈투

나달, ATP 바르셀로나 오픈 단식 우승

라파엘 나달(3위·스페인)이 무려 3시간 38분의 대접전 끝에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바르셀로나 오픈(총상금 156만5480 유로) 단식 정상에 올랐다.

나달은 25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스테파노스 치치파스(5위·그리스)를 2-1(6-4 6-7(6-8) 7-5)로 제압했다.

이로써 나달은 2018년 이후 3년 만에 바르셀로나오픈 패권을 탈환했다. 이 대회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연패를 달성하고, 2011년부터 2013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두 차례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나달은 바르셀로나 오픈에서만 12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나달과 치치파스의 결승전 소요 시간 3시간 38분은 ATP 투어가 경기 시간 측정을 시작한 1991년 이후 3세트 경기로는 최장 시간 결승전 기록이었다.

올해 ATP 투어 경기 중에서도 최장 시간 경기 기록이다. 이번 시즌 최장 시간 종전 기록은 바로 전날 세르비아에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ATP 투어 세르비아오픈 4강전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와 아슬란 카라체프(28위·러시아) 경기의 3시간 25분이었었다.

나달은 우승 상금 17만8985 유로(약 2억4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나달은 또 올해 2월 호주오픈 8강에서 치치파스에게 당한 2-3(6-3 6-2 6-7(4-7) 4-6 5-7) 역전패를 설욕하며 상대 전적 7승 2패 우위를 이어갔다.

/연합뉴스